

지역 문화 · 관광 진흥 위한 역할 강화

전북문화관광재단, 조직개편 · 사무처 이전... 3본부 조직체계 구성 · 사업운영 적극 추진

(재)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이 3본부 조직개편과 사무처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27일 재단에 따르면 3본부 조직체계 구성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신규 사무처에서 새롭게 재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문화와 관광 진흥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1차 1부 1단 6팀 체계에서 1차 3본부 1단 9팀제로 개편되면서 재단은 3본부 체계에 따라 적극적인 사업운영에 나선다. 또한 신규 직원 12명을 채용해 정원 대비 현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직안정화에 힘쓴다.

최상열 선임 문화예술진흥본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베이징대학 예술학 박사학위 취득,

(주)이스트웨이브 커뮤니케이션 베이징 대표, 아트 베이징 상임위원, 청년영화제 대외협력 총괄, 우주우대학 예술연구원 교수를 역임하는 등 폭넓게 업무를 수행해 온 문화기획 전문가다.

김현 선임 관광진흥본부장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아외휴양)을 졸업하고, 국립공립공단에 입사해 국립공립연구소, 대외협력팀을 거쳐 세계 최대 환경 분야 국제기구인 세계자연보존연맹(IUCN) 아시아지역사무소 수석기획관, 경기관광공사 마이스부로 단장, 송도국제컨벤션센터 센터장, 한국생태관광협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탁월한 성과와 리더십을 갖춘 전문가다.

조직개편과 함께 재단 사무처 이전도 함께

이뤄졌다. 조직 개편 및 신규 인원 채용에 따라 사무처를 기존 사무처로 활용하던 전북예술회관에서 전라감영빌딩 4층으로 확장 이전했다.

기존 전북예술회관은 공연기획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북 관광브랜드 상설공연, 예술인 복지증진센터, 전시실 운영을 통해 지역예술 플랫폼 기능을 할 예정이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예술인 복지와 문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본부와 전북관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관광진흥본부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재단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역 특색 살린 문화예술로 익산 매력 '풍덩~'

'문화가 있는 날, 익산을 거닐다' 행사... 공연 · 전시 · 미디어 파사드 등 진행

익산시는 지역 명소에 문화예술을 입혀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익산을 거닐다' 행사를 개최한다.

시는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자유기획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에서 전북도 유일하게 선정된 '문화가 있는 날, 익산을 거닐다'의 첫 공연을 오는 29일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나쁜 일 가고 좋은 일 온다'라는 주제로 공연 · 전시 · 미디어 파사드 · 미술 강좌 등으로 구성됐다.

익산 예술의전당 산책길에서 만나는 작은 음악감상회 '산책음악감' (5.29)을 시작으로 ▲국악 공연과 미디어아트로 캔버스가 된 마루사지 석담 '달빛우희' (7.2) ▲익산교도소세트장에서 보내는 청춘들의 하루 '감빵살롱' (7.31)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지역 청년 작가들의 전시와 도슨트의 렉서 콘서트 '푸른빛 밤' (8.26)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펼쳐지는 시민 참여 퍼레이드와 서커스축제 '유랑극장' (10.1) 등이 진행된다.

공연은 미리 사전 예약을 해야 관람이 가능

하며 자세한 사항은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공연 · 전시 시작 전 관객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안내요원 배치, 공연장소 수시방역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해당 공모사업은 생활 밀착형 문화시설을 거점으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기획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1차 서류와 2차 온라인 인터뷰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모든 프로그램들은 익산 예술의전당과 문화관광산업과, 역사문화재과, 익산 문화도시지원센터가 협업으로 운영한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지역 특색을 살린 이번 공연과 전시 등을 통해 익산의 매력을 더욱 느낄 수 있다"며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문화예술로 소통하고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익산시는 지역 명소에 문화예술을 입혀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 익산을 거닐다' 행사를 개최한다.

전북대 문화재돌봄사업단, '문화재 가꾸는 날' 행사 가져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전북 서부권 문화재돌봄사업단(단장 남해경)이 26일 익산 영등동 유적에서 '문화재 가꾸는 날'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우리 지역 문화재 돌봄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업단의 역할과 활동을 알리기 위해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날 사업단은 익산시민공원 내 영등동 유적 일대에서 예초작업과 주변 경관 정비 등 문화재 돌봄 작업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단 직원 최소 인원만 참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익산 영등동 유적은 청동기 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복합 유적으로, 2002년 익산 향토유

적 제1호로 지정됐다. 1985년부터 1996년까지 발굴조사가 이뤄져 집터와 토기편, 화살촉과 돌도끼 등이 수습됐다. 익산지역의 마한 시대 문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초기 주구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되는 유적이다.

남해경 단장은 "'문화재 가꾸는 날'은 문화재를 내 집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돌봄 사업 구성원이 함께하는 행사"라며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부안 출신 조재형 시인 산문집, 전국 도서관 보급

'집은 텅 비었고 주인은 말이 없다' 문학나눔 우수도서 선정

부안 출신 조재형 시인의 산문집 '집은 텅 비었고 주인은 말이 없다'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 우수도서로 선정돼 오는 7월부터 전국 도서관에 보급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26일 2021년 1차 문학나눔 도서보급 사업과 관련해 총 1,253종의 신청도서 중 170종을 선정했으며 조재형 시인이 응모한 수필분야는 311종이 접수돼 조 시인의 산문집을 포함해 42종이 최종 선정됐다.

지난 1월 '시골 법무사의 심심한 이야기'를 부제로 출간된 조재형 시인의 첫 산문집인 '집은 텅 비었고 주인은 말이 없다'는 검찰수사관과 법무사로서 살아온 조 시인의 삶이 녹아든 사건 중심의 에세이다.

문학에 대한 갈증으로 16년간의 검찰수사관 생활을 정리하고 법무사로 새로운 길을 시작해 2011년 시문학으로 등단한 조재형 시인은 시집 '지문을 수배하다'와 '누군가 나를 두리번 거린다'를 펴냈고 지난 2018년 푸른시화상을 수상했다.

조재형 시인은 "이 책은 거창한 지식이나 추상적 진실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수사



조재형 시인.

관과 법무사로 일하는 과정에서 직접 부딪치면서 몸을 상해 얻은 것으로 얼핏 법의 언어가 문학과 멀리 떨어져 있는 듯 하지만 현실을 담아내고 진실을 캐내는 점에서 무척 닮아 있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예술회관, '굿GOOD 보러 가자' 국악공연

6월 11일 판소리 · 가야금산조 · 북춤 · 부채춤 등 진행... 4일부터 티켓 무료 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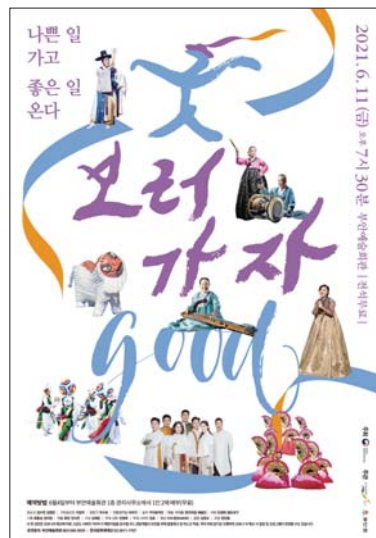
문화재청(청장 김현모)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이종희)이 주최하고 부안군(군수 권익현)과 한국문화재단(이사장 최영창)이 주관하는 국악공연 '굿GOOD 보러 가자'가 오는 6월 11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공연된다.

'굿GOOD 보러 가자'는 무형문화유산과 지역 스토리가 가미된 전통예술공연으로 국가무형문화재와 지역전통예술인 등 최고 명인을 만날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2021년 시작 공연을 부안예술회관에서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나쁜 일 가고 좋은 일 온다'는 테마로 서편제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오정해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수연 보유자의 판소리, 지성자 보유자의 가야금산조, 김창만 명고의 멋드러진 장단, 국수호 명무의 장한가, 한국집예술단의 북춤 · 부채춤, 전통창작 바라지, 농악 등의 관 굿이 펼쳐진다.

부안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공연이지만 6월 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안예술회관 1층 관리사무실에서 1인 2매 한정으로 입장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김영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굿은 발음 상은 좋은(GOOD) 것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번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군민의 근심을 위로하고 우리 전통의 참 멋을 누



국악공연 '굿GOOD 보러 가자'가 오는 6월 11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에서 무료로 공연된다.

끼고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